

세탁기를 다시 발명하다, LG 트롬 세탁기

LG전자는 1969년 국내 최초 백조 세탁기를 출시하며 기계로 빨래하는 시대를 열었다. 2020년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로 합쳐져, 세탁과 건조를 위한 공간은 분리되면서 단 하나의 조작부와 결합하여 사용이 편리한 국내 최초 원바디 세탁건조기 ‘LG 트롬 워시타워’를 출시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들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펫팸족의 의류 관리를 위해 펫케어 기능이 적용된 ‘펫케어 트롬 세탁기’ 등을 출시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LG TROMM

고객 니즈 반영해 혁신 거듭한 LG 세탁기

LG전자는 세탁기 출시에 머무르지 않고 세탁 문화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왔다. 백조 세탁기를 시초로 통돌이 세탁기로 알려진 전자동 세탁기, 2015년 세탁기 두 대를 결합한 트롬 트윈워시, 2020년 원바디 세탁건조기 트롬 워시타워 등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였다. LG전자는 세탁기를 단지 빨래하는 기계로 연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어떻게 하면 고객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가에 집중했다. 대표적인 예는 바로 LG 트롬 트윈워시다. LG전자는 옷감 종류나 위생에 따라 빨래를 따로 구분해 세탁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분리세탁’에 대한 고객 니즈에 주목했다. 이에 고객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조사하고 연구 개발해, 2015년 분리 세탁과 동시에 세탁이 가능한 LG 트롬 트윈워시를 출시했다. 주로 사용하는 드럼 세탁기는 위쪽에, 가벼운 빨래 위주로 사용하는 미니워시는 아래쪽에 배치하는 등 인체공학적 요소도 감안했다. 또한 LG 트롬 세탁기뿐만 아니라 LG 트롬 건조기에도 미니워시를 하단에 설치할 수 있어 활용성을 더했다.

공간과 조화 이루는 원바디 세탁건조기 ‘LG 트롬 워시타워’

LG전자는 지난해 일체형 디자인의 원바디 세탁건조기 트롬 워시타워를 선보이며 새로운 의류관리문화를 제시했다. LG 트롬 워시타워는 동급의 대용량 드럼세탁기와 건조기를 위아래로 설치할 때보다 높이가 약 87mm 낮다. 별도의 받침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건조기에 세탁물을 넣고 빼거나 필터를 관리하는 게 편리하다. 워시타워 가운데에 있는 조작판넬인 원바디 런드리 컨트롤은 이전에 비해 손을 위로 멀리 뻗거나 리모컨을 쓰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여러 코스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버튼을 눌러 직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얼을 돌려 조작하는 것에 비해 직관적이다. 트롬 워시타워는 별도의 스마트폰 앱이나 별도의 유선 연결 없이도 세탁기가 사용한 세탁코스를 건조기로 전달하면 건조기가 가장 적합한 건조코스를 알아서 설정한다. 디자인은 감각적이고 미니멀하다. 불필요한 선과 여백을 없애 매끄러운 심리스 디자인을 구현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글라스 도어는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LG전자는 어떤 공간과도 조화를 이루는 오브제컬렉션 색상의 모델도 선보이며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CEO INTERVIEW



LG전자(주)
사장

권봉석

LG전자의 트롬 세탁기가 2010년 이후 12년 연속 프리미엄브랜드지수 1위를 차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수상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류관리문화를 제시하며 고객으로부터 차별화된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LG전자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며 새로운 고객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